

3·1절 스크린, 왜 ‘서대문 여옥사 8호 감방’인가

만삭 임신부부터 장애인·기생까지 유관순과 함께 투옥된 여성들 조명 ‘8호 감방’의 처절한 투쟁역사 담아

1919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열일곱살의 유관순은 3월1일 일제에 맞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효교령으로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간 그는 4월1일 아우내 장터에서 역시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결국 일제 헌병에게 체포된 그는 6월 3년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다. 유관순이 갇혔던 곳,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이었다. 여기에서는 그 말고도 또 다른 여성들이 갇힌 채 일제에 맞섰다. 유관순과 동갑내기인 노순경을 비롯해 어윤희(39), 권애라(23), 심명철(23), 임명애(34), 신관빈(35)이 옥중 항일

투쟁에 나섰다.

유관순은 그동안 3·1운동의 중요한 상징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조국의 독립을 감옥에서 외친 이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2월27일 개봉하는 ‘항거:유관순 이야기’(감독 조민호·제작 디씨지플러스)와 3월 선보이는 다큐멘터리 영화 ‘1919유관순’(감독 신상민·제작 유관순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유관순과 함께 이들 여성들의 이야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항일운동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두 영화는 유관순과 함께 투옥됐던 이들의 처절한 투쟁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며 가슴 아픈 역사를 알린다. 시각장

ऐ인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심명철, 만삭의 몸이었던 임명애, 기생들의 시위를 주도한 수원 기생조합 출신 김향화, 여고 사감이었던 신관빈, 기독교 전도인으로 항일운동을 벌인 어윤희, 유관순의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선배인 권애라 등 서대문형무소 8호 감방에 갇혔던 이들은 일제의 악랄하고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옥중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고아성이 유관순 역을 맡아 주연하는 ‘항거:유관순 이야기’에서는 배우 김새벽, 김예은, 정하담 등이 서대문형무소 8호 감방의 독립운동가로 나선다. 드라마타이즈 기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1919유관순’은 이새봄, 김나니, 박자희, 나애진 등 신예들이 출연해 서대문형무소 8호 감방의 아픔을 전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고아성이 유관순을 연기한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1년간 잠행’ 오달수 영화계 복귀 움직임



오달수

배우 오달수가 활동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잠행을 끝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오달수가 지난해 말부터 영화관계자들과 만나면서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소속사 이적 등을 포함해 곧 행보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수는 지난해 2월 성폭력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비슷한 시기 연예계와 문화계를 뒤흔든 ‘미투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한 연극배우가 오달수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달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과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다. 그를 옹호하는 시선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달수는 1년간 잠행을 택했다. 간혹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근황을 알렸지만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도 구체적인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런 오달수가 얼마 전부터 절친한 영화계 인사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활동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 매니지먼트사와 신중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계약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양측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영화계 추모 행렬

나문희 “좋은 곳으로 가시길” 애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28일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에 영화계도 추모 행렬을 잇고 있다. 배우 나문희는 고인의 빈소를 직접 찾았고, 변영주 감독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그려온 영화의 주역들이다.

나문희는 29일 오후 고인의 빈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그는 “고생 많이 하셨으니 날개를 달고 편한 곳,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문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미 의회를 찾아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기까지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아이 캔스피크’의 주연. 영화는 김 할머니가 1992년 8월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했던 사실을 모티브 삼았다.

1995년 다큐멘터리 영화 ‘낯은 목소리’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한 변영주 감독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김복동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수줍어하고, 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런 분이셨다. 그럼에도 그녀는 세상에 스스로를 밝히고 전선의 앞줄에 힘겹게 섰



배우 나문희가 29일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나가고 있다.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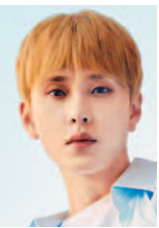
다”고 말했다. 이어 “한 걸음을 건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세상 모든 피해 여성의 깃발이 되었다”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싸움을 나섰던 고인을 위로했다.

김조광수 감독도 SNS에서 “이제 편히 쉬세요. 남은 저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용준형 입대 전 ‘폭풍 활동’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행보다. 올해 입대를 앞둔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용준형(30)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입대로 인한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제 영역까지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29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에 따르면



용준형

용준형은 올해 입대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입대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 입대 직전까지 활발히 활동할 것을 예고했다.

그 첫 걸음은 31일 내는 새 솔로곡 ‘빈타타리’다. 지난해 디지털 싱글 ‘소나기’를 선보인 후 1년여 만에 신곡을 발표한 그는 또 한 번 ‘남성들의 애창곡’에 도전한다. ‘소나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아픈 마음을, 갑작스럽게 찾

아온 소나기에 빚대 노래해 당시 각종 음원차트와 노래방 등에서 인기를 얻었다. ‘빈타타리’는 사랑 하나에 전부를 건 한 남자의 슬픈 이별을 담은 노래다. 용준형이 가사를 썼고, 그가 속한 프로듀싱팀 굿라이프가 작곡했다. 용준형은 신곡을 선보인 뒤 곧바로 콘서트에 돌입한다. 2월 1일과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 ‘용준형 라이브 2019-굿바이 트윈티스’를 열고 팬들과 함께 20대를 마무리한다.

본업인 가수로서 아쉽게 않은 활동 성

과를 냈다면 연기자로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최근 종영한 채널A 금요드라마 ‘커피부탁해’를 통해 연기자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기자로 첫 발을 내디딘 웹툰 드라마 ‘몬스타’ 이후 5년 만의 복귀작에서 웹툰 작가 임현우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한편 이미 입대한 윤두준, 양요섭에 이어 용준형, 이기광, 손동운이 올해 그 뒤를 이으면서 5인조 그룹 하이라이트의 모든 멤버가 군 복무하게 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식당용 전기솥밥기계 IH-솥밥대통령™

국내 최초 3면 입체가열! 미리 밥짓기 기능 탑재로 4분만에 손님상에

더 빠르다! 더 맛있다! 더 가볍다!
4분완성 누룽지 압력 솥밥

가스가 아닌 전기를 이용해 누룽지 솥밥을 짓는 압소용 기기를 개발해 판매한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 하는 이들이 많았다. 밥이 잘 될까? 맛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반 제품과는 판매 방식이 좀 달랐다. 식당마다 시연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밥을 해서 먹어보게 했다. 시연을 지켜보고 밥을 먹어본 식당 대표들은 심중팔구 기기를 구입했다. 그렇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돼 전국 식당에 수천 대가 깔렸다.

◆ 2018년형 신제품 출시

〔한국미래기술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기술인 3면 입체가열방식을 채택해 밥이 더 맛있으면 서도 빠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018년형 솥밥대통령은 디자



◀ 솥 전체를 가열하는 인덕션은 "솥밥대통령™" 뿐입니다!



〈국내 단독 최초〉
IH 3D 입체 3면 가열

인을 더 세련되고 편리하게 개선했고 매장 편의적인 핵심 기술을 대거 추가했다. 우선 4분 데우기 기능과 별도로 자동보온 기능이 추가됐다. 밥이 다 되면 밥 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하는 기능이다.

단체 예약손님이나 거의 일정한 수의 손님들이 오는 식당에 유용한 기능이다. 예약한 손님들이 조금 늦더라도 갖 지은 것과 같은 품질로 손님상에 낼 수 있다. 또한 밥의 상태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진밥에서 꼬들꼬들한 밥에 이르기까지 손님 취향에 맞춰 밥을 지어



무료 출장 시연
불러만 주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기계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사장님 댁으로 지은 밥맛을 보시고 결정하세요!

낼 수 있다.

제품 타입도 기존 10구, 15구, 20구 등 3가지 모델에서 5구, 8구, 12구, 15구, 16구, 20구 등 매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매장이 원할 경우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해졌다.

◆ 고솥고솥 누룽지 솥밥, 4분 완성

솥밥대통령은 쉰 밥업자들이 그 놀라움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 우선 밥맛이 집밥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장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이다. 한 볼 한 볼 밥 알이 살아있는 것은 물

론이고 마치 옛날 가마솥에 한 찰쌀밥처럼 윤기가 좌르르 흐른다.

솥밥대통령은 압력과 비압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겸용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최대 장점이면서 대형 음식점 업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데우기 기능은 그대로 계승됐다. 데우기 기능을 이용할 경우 4분이면 똑딱 솥밥을 완성할 수 있다.

◆ 전기 이용하는 침탄 솥밥기

솥밥대통령은 가스가 아닌 전기로 옛날 가마 밥맛을 완벽히 재현한 제품이다. 솥 외에는 열도 나지 않고 일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아 주방이 아닌 홀에 놓고 사용해도 될 만큼 깨끗한 제품이다.

◆ 1시간에 140인분 똑딱

이 제품은 원터치 전자솥 제품으로 볼 조절이나 뜸을 들이기 위해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팔만 켜면 안치고 버튼만 눌러주면 7분 만에 최대 20인분의 솥밥이 똑딱 완성된다. 따라서 1시간이면 140인분이 넘는

솥밥을 똑딱 완성할 수 있다.

◆ 기기값 전액 할부 가능

이 회사는 영세한 음식점들도 솥밥대통령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기기값 전액에 대해 36개월 할부 시스템을 운영한다. 내구성도 좋아 잔고장이 거의 없으며 평생 무상 A/S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솥밥대통령 상담&시연 ☎1661-9565